

2006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으로 알아본 결핵실태

글: 김배정임(결핵연구원 조사연구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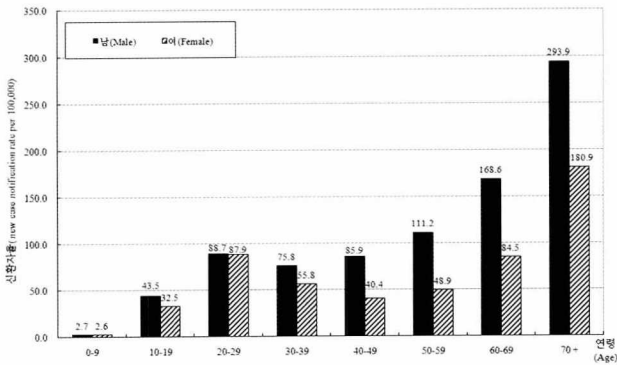


그림 1. 성별, 연령별, 결핵 신환자율 2006

우리 주변에는 장티푸스, 콜레라, 말라리아, 페스트와 같은 고전적인 질병부터 현대의 사스(SARS), 에이즈, 조류독감 등 수많은 전염병들이 공존하고 있다. 때때로 이들은 우리들에게 알 수 없는, 막연한,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공포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실제로 매년 천바람이 불기시작하고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가 되면 온 세계가 조류독감을 우려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많은 전염병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병은 무엇일까? 또 전염병 중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무엇일까? 바로 결핵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통계에 의하면 2005년의 집계 가능한 전염병 발생환자 48,787명의 72.3%인 35,269명이 결핵환자였고, 2006년에도 35,361명의 결핵 환자가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 전염병정보망,

표 1. 연도별 신고 결핵 신환자(율) 추이, 2002-2006

Table 1. Trend of new case notification rate per 100,000 by year, 2002-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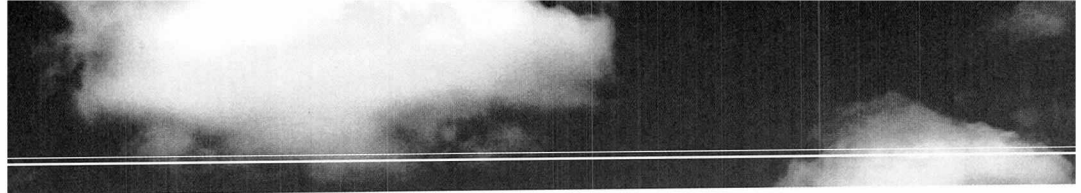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2006
전결핵 All forms of TB		32,010[67.2]	30,687[64.0]	31,503[65.4]	35,269[73.0]	35,361[73.2]
폐결핵 Pulmonary TB	활동성	28,039[58.9]	26,940[56.2]	27,947[58.0]	30,098[62.3]	30,317[62.8]
	도말양성	11,345[23.8]	10,976[22.9]	11,501[23.9]	11,638[24.1]	11,513[23.8]
폐외결핵 Extra-pulmonary TB		3,971[8.3]	3,747[7.8]	3,556[7.4]	5,171[10.7]	5,044[10.4]

[] : 인구 10만명당 결핵 신환자율

<http://dis.cdc.go.kr>, 2006 결핵환자신고현황 연보). 또한 통계청의 2006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의하면, 특정 감염성 질환 및 기생충성 질환 사망자 5,449명 중 절반인(50.1%) 2,733명이 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은 OECD 가입국 중 최고치를 보인다.

결핵 신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20대에서 피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20대 결핵환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진학 및 취업으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핵 환자와의 접촉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결핵역학의 특성상 결핵에 감염되면 감염된 이후 1-2년 이내 가장 결핵 발병률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핵환자가 적은 선진국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핵 발생률이 증가한다. 이 경우 결핵이 주로 발생하는 노인들이 노화에 의하여 사망하



게 되면 향후 결핵 문제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20대에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면 이들이 다시 타인에 대한 전염원이 되어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진국형 결핵 분포'라고 한다.

요즘 신종 또는 수퍼 결핵균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이는 실제로는 '다제내성 결핵균'을 의미한다. 다제내성 결핵균이란 단순히 여러 가지 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결핵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결핵약제인 아이나(INH)와 리팜피신(RMP) 두 가지 약제에 동시 내성인 결핵균을 의미하며 이 균에 감염되어 발병한 환자를 다제내성 환자라고 한다.

처음 결핵을 치료할 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면 약제에 내성을 갖게 되는 다제 내성 결핵은 치료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독한 항생제를 더 오랜기간(2년) 복용해야만 한다. 또한 이들은 오랜 치료기간 만큼 타인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 높아서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1998년과 2003년, 2004년 보건소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핵 약제 내성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결핵 신환자중 다제내성 결핵환자 비율이 2.2%, 2.4% 그리고

2.7%로 점차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결핵을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핵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적이 없었다. 오히려 조금만 소홀히 하면 결핵은 금방 우리를 다시 위협한다.

과거 미국에서 결핵환자가 감소되어 결핵이 거의 퇴치된 것으로 보고 국가의 결핵관리 예산 및 인력을 줄였다가 다시 결핵환자가 증가한 예가 있으며, 일본에서도 '결핵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결핵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결핵 발생 연령이 낮다는 점과 다제내성 결핵이 증가하고 있는 등의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하루 빨리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